
VIII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체제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향후 글로벌 및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보험회사가 시스템위험을 유발하는가의 정도는 사업모형의 유형(전통적인 보험영업에 집중하는 모형, 보험그룹 또는 금융복합그룹의 조직구조를 통한 비 전통/비 보험 사업모형, 금융보증 전업 사업모형)에 의존한다. 전통적인 보험 사업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는 시스템위험이 낮은 반면 비전통 또는 비보험 영업 활동규모가 클수록 시스템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보험회사는 보험 부채위험의 고유성과 대수의 법칙에 의해 위험을 풀링 또는 이전시킨다는 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의 만기에 매칭하는 자산운용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한다. 이러한 보험사업모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상 중요 보험회사를 식별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업모형의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상 중요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 비전통 영업활동규모가 다른 기준(규모, 글로벌 영업활동, 연계성, 복잡성, 대체가능성)보다도 가장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시스템상 중요 은행을 지정하는 방법과 차별화된다. 또한 글로벌 또는 국가별 SIFI이슈가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 글로벌 SIFI는 국내 보험회사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현재 국별 N-SIFI의 지정기준 이슈는 향후 국내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에 중요한 현안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다음으로 시스템위험규제에 대한 한계점을 논의하기로 하자. 최근 FSB/IAIS가 제시한 시스템위험은 금융시스템의 관점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향후 시스템위험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

다. 시스템위험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시스템위기관리에 보다 유용하기 때문이다. 부정확한 위험 측정은 감독당국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험관리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예컨대 측정상의 오류로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 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간섭이 이루어진다. 반면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아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위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위험측정(risk metric)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보다는 시장에서 용이하기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시스템위험측정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